

5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

2009년 5월 25일

리서치센터

02) 2009-7083

hsjeong@leading.co.kr

제목	주요 내용
다우 0.18%↓, 시어스 호재 불구, 막판 하락 반전	메모리얼 데이(25일) 연휴를 앞두고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음. 다우지수는 14.81포인트(0.18%) 하락한 8,277.32를 기록하였고, S&P500지수는 1.33포인트(0.15%) 떨어진 887.00, 나스닥 지수 역시 3.24포인트(0.19%) 내려선 1,692.01로 장을 마쳤음. 미국 3대 백화점 체인 가운데 하나인 시어스 홀딩스가 예상 밖의 큰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미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음. 반면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amp;푸어스(S&P)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'부정적'으로 하향, 미국도 최고등급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았음.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장후반까지 플러스권을 유지하던 미 증시는 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장 마감 30분여를 앞두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음. 제너럴 모터스(GM)가 이르면 다음주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휴 주식 보유 리스크를 키우면서 차익 매물이 늘었음.
시어스, 소매 관련주 강세 주도	시어스 홀딩스는 올 1분기 순익이 당초 주당 87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(블룸버그 집계 전망치)됐으나 주당 38센트의 흑자를 기록했음. 광고비 집행을 줄이고 인건비를 삭감한 게 예상 밖 흑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임. 주가는 한때 20%가까이 폭등한 끝에 10.38% 상승한채 마감했음.
국제유가 1% 상승...\$61.67	국제유가는 달러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음. 7월 선물 서부텍사스유는 어제 종가 보다 62센트 1% 올라 1배럴에 61달러 67센트로 거래를 마쳤음.
中 페트로차이나, 싱가포르 SPC 지분인수 추진	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트로차이나는 SPC의 지분 45.5%(2억 3450만주)를 싱가포르에 소재한 케펠코프로부터 사들일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음. 세계 최대 유정(油井)건설업체인 케펠코프는 보유 중인 SPC의 지분 전량을 내놓을 예정.
유럽증시, 이틀째 하락..주간으론 2% 상승	유럽증시가 22일(현지시간)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음. 핸드폰인 노키아와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부진한 실적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. 노키아의 이날 주가 하락폭은 최근 2개월래 가장 큰6%를 기록. 노키아의 올 1분기 시장점유율이 전년(39.1%)보다 떨어진 36.2%를 기록했다는 가트너의 조사결과가 부담을 줬음.

제목	주요 내용
英 국가신용등급 운명, 내년 총선 지나야 갈린다	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(S&P)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`안정적`에서 `부정적`으로 하향하면서 충격파를 던졌음. S&P는 지난 1978년 등급책정 업무 개시와 함께 영국에 최상위 국가신용등급인 트리플A(AAA) 등급을 매겼음.
이윤호 장관 "꼬리 긴 L자형 경기회복 예상"	이 장관은 21일 과천시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"아직 희망이 뚜렷하지 않고 혼조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"면서 이같이 말했음. 이 장관은 "대기업들은 예정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4대그룹의 경우 연구·개발(R&D) 투자는 전년대비 15% 늘었지만 (전반적인)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"며 "이제 설비투자를 해야한다"고 강조.
전국 땅값 6개월만에 상승..0.06%↑	2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`4월 지가 및 토지거래량 동향`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전월에 비해 0.06% 올라 작년 10월 이후 처음 상승세를 보였다. 전국 대부분의 땅값이 하락했지만 서울·인천·경기 등 수도권 땅값이 상승한데 힘입은 바 컸다. 이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땅값은 작년 12월말 대비 1.13% 하락한 상황.
상의 "금융산업 5대 리스크..경기회복 지연 우려	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`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` 보고서를 통해 "현재 국내 금융산업에는 `부실채권증가` 등 안정성을 저해하는 5대 리스크가 있다"며 이같이 밝혔음. 대한상의가 꼽은 5대 리스크는 부실채권 증가,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지악화,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, 주택시장 침체, 중산층 축소 등임.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